

# 침략자를 반대하는 정신을 반영한 아일랜드영어시문학

리 일 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진보적인 시는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한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6권 303페이지)

아일랜드의 시문학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을 쟁취하려는 인민들의 지향을 반영하였으며 사람들을 투쟁으로 불려일으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은 다양한 주제사상적내용을 담고있으나 그중에서도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정신을 반영한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은 무엇보다먼저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조상전래의 민족적인 귀중한 모든것이 사멸되어가는 식민지조국땅의 비참한 모습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있다.

시인들은 온갖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용맹하게 싸우면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굳건히 지켜오던 조상들의 넋마저 점차 사라져가고 영국의 지배밑에 살수가 없어 사람들이 정든 땅을 떠나가는 가슴아픈 정경을 눈물겨운 한탄속에 노래하였다.

켈트인의 후예들인 아일랜드사람들은 로마노예소유자들의 침략과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을 반대하여 굳세게 싸워왔다.

그러나 오랜 기간의 영국의 지배밑에 그 기상마저 점차 쇠약해지게 되었으며 진보적이며 애국적인 시인들은 이러한 가슴아픈 참경을 목격하면서 민족의 얼을 불려일으키는 절절한 목소리를 합쳐 노래하였다.

살러트 브루크는 시 《아일랜드의 옛 시가》에서 지난날 외래침략자들과의 싸움에서 것처럼 용맹떨치던 장수들의 기상은 없어지고 원쑤들만이 활개치는 식민지현실에 대한 슬픈 감정을 토로하였다.

시인은 진보적이며 영웅적인 조상들의 위훈을 되새겨보면서 또다시 침략자를 무찌르는 싸움에서 용맹떨칠 그날에로 부르는 자신의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며 영국의 지배와 략탈에서 벗어나 자유가 실현될 조국의 미래를 애타게 그려보았다.

존 몬터규는 시 《리별》에서 나라잃은 민족이 되어 살길을 찾아 방황하는 아일랜드사람들의 처량한 모습을 구슬프게 노래하였다. 작품에서는 한 항구의 저녁풍경을 펼쳐보이면서 《배 한척 어두운 물결우에／기척도 없이 부드러이 떠나가네／애처로운 기적을 울리며》라고 하였으며 네살잡이 어린애가 가당은 곳도 이 슬픈 항구도시였다고 회고한다. 그러면서 시인은 항구에서 떠나는 행렬, 들어오는 행렬은 아일랜드로 되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음을 알리고 그 어디에 가도 살곳없어 류랑하는 동포들의 가슴저미는 정경을 눈물겹게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나라를 빼앗겨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민족의 슬픔과 불행을 정서적표현속에 절절히 펼쳐보이였다.

패트릭 캐버너도 켈트족의 넋을 이은 아일랜드사람들의 민족정신을 구현한 시문학을 창조발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수많은 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침략자의 발굽밑에 민족의 고귀한 풍습과 전통, 언어와 문화마저 사멸되어가는 아일랜드현실에 대한 울분과 한탄은 시인들의 시편들에서 가장 절절하게 울려나왔다. 그것은

그대로 자유와 독립을 절규하는 아일랜드인민의 심정에 대한 대변의 목소리였다.

침략자를 반대하는 정신을 반영한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은 다음으로 자기들의 조상대대의 땅을 강점하고 온갖 만행을 일삼는 영국침략자들에 대한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시인들은 작품들에서 아일랜드를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는 영국침략자들과 함께 침략자들에게 아부굴종하며 민족의 고귀한 재부와 풍속, 습관마저 다 없애버리는 반역자들을 규탄하고 그들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었다.

로런스 화이트는 작품집 《시집》에 실린 시 《리별의 잔》에서 식민지로 온갖 략탈을 당하는 조국현실을 한탄하고 통치자들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였다.

시인은 민족의 재부를 모조리 없애버리는 아일랜드귀족들과 매국적인 신흥부르주아지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를 터뜨리었으며 가혹한 식민지략탈의 결과 농촌사람들이 무리로 고향땅을 떠나버리고 마을과 교구들이 황폐화되고있는 현실을 통탄하였다.

토마스 더모디 역시 영국의 식민지통치에 대한 분노와 항거를 표시한 시들을 써낸 시인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시 《에린의 하프》에서 식민지통치밑에서 온갖 부패한것만이 가득찬 아일랜드현실에 대한 분노와 경멸을 표시하였다. 시인은 아일랜드가 거짓이 가득찬 땅으로 되었으며 썩은 잡초만 우거져 값높은 꽃들은 사라지고 거만과 궁핍의 조상이 틀고앉아 무지와 투기, 사기만 남은 땅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영국의 통치밑에서 모든것이 파괴되어 황폐화된 분노와 경멸의 감정을 터뜨리고있다.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의 시인들은 영국통치배들에게 아부굴종하는자들과 비록 식민지민족이 되었지만 항거의 정신을 굽히지 않고있는 사람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보여주는 작품들도 내놓았다.

휴맥 고런의 담시 《오류크의 연회》에서는 아일랜드의 지방토호의 집에서 차린 큰 연회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처음에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듯 하던 연회가 지배자와 피지배자사이의 알력과 모순으로 시작된 말다툼끝에 격전을 방불케 하는 싸움으로 돌변한다. 격노한 사람들은 영국통치배들과 그 앞잡이들을 사정없이 때려눕힌다.

시인은 《곤봉이 두렵거든 어디 대들어보라, 오라 채찍을 휘둘러치고 궁둥이를 걷어차 버리겠다.》고 하면서 침략자에게 붙어 제법 신자들의 싸움을 말리겠다고 나섰다가 뒤통수를 얻어맞고 혼비백산하여 너두리를 치며 도망치는 목사의 몰골도 야유하고있다. 시에서는 비록 잠자는듯 하여도 언제 화산처럼 분출할지 모르는 아일랜드사람들의 침략자에 대한 증오심과 복수의 감정을 신랄한 말마디들로 표현하고있다.

윌리엄 드렌넨은 시 《윌리엄 오르의 자취》에서 영국침략자들의 야수적학살만행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견결한 항거의 정신을 불려일으키고있다. 시에서는 침략자들에게 항거하였다고 하여 반역죄를 들썩워 무고한 알스터농민을 교수형에 처한 식민지당국을 규탄하였다.

시인은 침략자들이 제 아무리 학살과 략탈로 온갖 만행을 다하여도 인민들의 항거의 정신을 절대로 없애버리지 못할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애국으로 불타는 형제들의 피는 도저히 식히고 영켜볼게 못할것이라고 선언하고있다.

침략자를 반대하는 정신을 반영한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은 다음으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인민들을 불려일으키는 강렬한 호소성을 나타내고있다.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의 적지 않은 창작가들은 장구한 식민지통치밑에 시달릴대로 시

달리고 불행과 고통은 끝이 없지만 민족의 강한 기개를 꺾지 말고 결사적인 투쟁으로 나설것을 열렬히 주장한 시들을 내놓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조상 켈트족이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가진 강한 인민이었으며 외래침략자들과 굴함없이 싸운 영웅적무훈담들로 자랑떨치는 사람들이라는것을 밝히고 그런 민족의 후예답게 과감히 싸움에 나서라고 호소하였다.

토마스 킨셀라는 시 《미브녀왕의 략탈》에서 켈트족의 갈래로서 아일랜드사람들의 주되는 선조인 알스터족과 그의 전설적무사 쿠홀린에 대한 무훈담을 펼치고 과감한 투쟁의욕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알스터의 설화 《장수 쿠홀린이야기》에서 17살의 소년장수는 이웃 아마존족의 녀왕 미브의 군대와 단독으로 싸워이기는 불패의 무사이다. 시인은 가장 용맹한 소년장수들인 쿠홀린과 퍼디아의 치렬한 단병접전을 분노한 신들의 장엄한 결전에 비겨 노래하였다. 이들의 싸움은 마치 강물이 흐름을 거슬러 거꾸로 일어서고 강바닥이 통채로 드러나는듯 노호하는 무시무시한 격전이였다.

시는 이들의 싸움장면을 그려보여주면서 피가 끓고 투쟁의욕에 불타올라 저마다 창검을 들고 싸움에 나서고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외래침략자들을 무찔러버리는 장엄한 투쟁으로 호소하는 시의 주체사상적의도는 글줄마다에 력력히 맥박치고있다.

찰즈 도넬리의 시들은 아일랜드사람들을 영국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으로 부르는 전투적호소성을 담고있다.

그는 시 《전투》에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것은 성스러운 일로, 의무로 된다고 주장하고있다.

작품에서는 영국강점자들을 반대하여 폭동을 일으킨 봉기자들이 기발을 휘날리며 안개 낀 바다가로 쳐들어오는 적들과의 싸움을 기다리는 모습을 노래하고있다. 이와 함께 이 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침략자를 물리치는 결사의 싸움으로 부르는 호소성이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리차드 머피는 시창작을 통하여 영국의 지배를 반대하고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호소하는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표현하였다.

시인은 시 《오그림의 전투》에서 아일랜드의 독립을 요구하여 무장을 들고 영국지배자들과의 싸움에 나선 공화군을 찬양하였다. 시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사이에 얽힌 과거사를 돌이켜보며 1691년에 오그림에서 벌어진 영국군과의 결전에서 용감히 싸운 아일랜드용사들을 추억하였다.

시인은 결사의 싸움에서 조상들의 위훈을 잊지 말고 승리를 위해 용감하게 맞서 투쟁할것을 호소하고있다. 인민들이 마침내 무장을 들고 침략자와의 싸움에 나선 현실을 환희에 차서 바라보는 시인은 지난날이 오늘인듯 떠오른다고 하면서 미래의 승리를 확신하고있다.

루이스 맥니스는 자기의 시들에서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에 일떠나설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사람들을 혁명으로 불렀다. 그는 시 《북방수탉》에서 투쟁에 일떠선 아일랜드사람들의 씩씩한 모습을 환희에 넘쳐 찬양하였다. 시인은 아일랜드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더블린사람들이 기발을 휘날리며 말을 타고 대포를 쏘며 보무당당히 투쟁에 나선 사실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혁명만이 가난과 학대에 시달리던 처지에서 해방시켜 용감한 투사로 만들어준다고 주장하고있다.

아일랜드영어시문학에서는 일련의 제한성과 부족점들도 나타나고있다.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은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지 못하고 부르조아민주주의사상에 기초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아일랜드민족해방투쟁의 구체적인 사회계급적투쟁방도를 밝히지 못하였다. 적지 않은 시들에서 투쟁에로의 강렬한 호소가 울려나왔지만 실지 영국식민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인 지주, 부르조아계급을 타도하기 위한 혁명적이고 구체적인 투쟁구호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의 일부 작품들에서는 침략자, 식민지 지배자들을 규탄하고 항거의 정신을 표현하면서도 비관주의, 타협사상, 종교적무저항주의 등 사상적으로 불건전한 경향들도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아일랜드영어시문학은 전반적으로 가혹한 식민지 지배와 략탈, 침략자들의 탄압과 착취밑에, 학살만행속에 신음하는 아일랜드인민들을 해방투쟁, 독립투쟁으로 불려일으키는데 긍정적인영향을 주었다.